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5월 3일(일) 제1587호



지난해 '가정주일'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가족사진을 찍고 있는 성도들.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5월 19~21일
‘2026 정신건강 세미나’

2026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대한 통합적 치료와 돌봄’이 5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관련 기사 5면>.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10일(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5만 원(식사, 간식비 및 교재비 포함). 참석자는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공개사례 발표회 참석 1회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6 정신건강 세미나에서는 ‘정신’, ‘정서’, ‘통합’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채규만 교수(한국 및 미국 임상 심리전문가), 김성진 진료부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상담코칭학),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현주 교수(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 장석연 원장(그로웨이브 심리상담센터), 유현주 교수(Soh 심리영성센터 소장), 안해용 목사(목회자마음돌봄센터 센터장), 남윤영 박사(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최용일 장로(청담경희한의원, 청담경희한방연구소 원장), 정주호 대표(한동대학교 글로벌 리더십학부 겸임교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한편, 책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두란노)가 오는 5월 15일 출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불안에 대해 정신의학적, 심리학적, 성경적으로 다각적인 통찰을 하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돌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문의: 02-3215-3532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3주년 감사예배

5월 2~3일 모든 주일예배

영종온누리교회 창립 3주년이다. 5월 2일(토)과 3일(일) 모든 주일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린다. 도육환 목사(영종온누리교회 담당)가 말씀을 전한다. 5월 3일(일) 오후 12시에는 차세대와 지역 주민을 위한 ‘제2회 말우물어린 이축제’를 개최한다.

도육환 목사는 “영종온누리교회가 선교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란다”며 “배에 승선한 모든 성도가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승조원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23년 5월 7일 ‘하늘을 향한 새로운 항해’를 비전으로 내걸고 국내 11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가정,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5월 3일 차세대주일, 5월 9~10일 가정주일
5월 9일과 10일, 온누리교회 가정의 달 행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5월 3일 차세대주일, 9~10일 가정주일로 지킨다. 9일과 10일에는 국내 13개 온누리교회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5월 첫째 주(2~3일)와 둘째 주(9~10일) 주일예배에서는 ‘가정’을 주제로 설교한다.

5월 3일(일)은 ‘차세대주일’이다. 야외행사는 오전 예배로 인해 5월 10일(일)에 한다. 이날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서 바이킹,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 차세대들

위한 놀이시설을 운영한다. CGN에서도 ‘차세대주일 이벤트’를 한다. 서빙고에 촬영부스를 설치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액자를 제작해 선물로 제공한다. 양재에서는 추억의 선물 뽑기 이벤트를 한다.

5월 9일(토)과 10일(일)은 ‘가정주일’이다. 온누리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을 ‘가정주일’로 지킨다. 이날 예배에 참석하는 70세 이상 성도들에게는 카네이션을 달아 준다.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에서 ‘온누리교회 가정의 달 행사’도 개최한다. 교회 로비, 주차장,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 등에는 포토존을 설치해서 가족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한다. 각 캠퍼스 로비에는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프로그램 소개하는 홍보 부스도 설치한다.

또한 가정예배 캠페인도 한다. ‘최고의 가족 사랑은 가정예배의 실천입니다’를 주제로 가정예배 가이드를 제공한다. 가정예배 가이드에는 세 가지 가정예배 형식(일상 가정예배, 대화식 가정예배, 전통 가정예배) 소개와 가정예배를 실천하는 성도들의 간증 등이 담겨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모맞춤전도여행 ‘기차는 행복을 싣고’

5월 25일 오전 9시 서울역 출발

전도사역본부에서 ‘부모맞춤전도여행’을 떠난다. ‘기차는 행복을 싣고’를 주제로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를 간다. 5월 25일(월) 오전 9시 서울역에서 출발한다. 기차 안에서는 레크리에이션, 포스트잇 편지 쓰기, 가족사진 찍기, 가족 사연 방송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포스트잇 편지와 가족사진을 청풍리조트에 전시할 예정이다. 청풍리조트에서는 식사, 콘서트, 여성민 목사의 메

시지, 결신 카드 작성, 산책 등을 한다. 가수 이무송, 가스펠싱어 지미선, 하모니카 연주자 최상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세례식은 청풍리조트와 귀갓길 기차에서 한다.

6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전도 여행을 떠날 성도들은 하단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 문의: 02-3215-3214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5월 2~3일 ‘대중교통 이용의 날’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캠페인이 5월 3일(일) 오후 6시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이어진다. 이 기간 교회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교회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성도와 주차카드 발급 차량 중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확인한 다음 입차할 수 있다. 5월 3일(일)에만 교회를 오가는 셔틀을 운행한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에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모든 것이 쓰임 받는 세계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만 아무 쓰임도 없이 땅을 오염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려면, 그분의 자녀들 인생 또한 버릴 게 없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 본문에서 어떻게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세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축으로 전개됩니다.

첫째,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둘째, “이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셋째, “남은 조각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에서 멈춥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이 배부름을 얻었다는 장면에서 묵상을 마칩니다.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 주신 세 번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이야말로 오병이어 사건의 신학적, 신앙적 핵심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사용된 단어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버리지 말라”, “모아두라”는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핵심 단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할 때 ‘멸망하다’라는 단어도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 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이 동사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하셨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남은 빵 조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명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

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빵 한 조각도 버려지지 않도록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 ‘잃지 않음’이 예수님의 동일한 성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 본문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작은 것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기적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값싼 빵이었습니다. 밀로 된 빵은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이었고, 보리로 된 빵은 종이나 가축들의 먹이로 사용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옵사리온’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잡히는 아주 작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었던 생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락은 한 가난한 소년의 작은 점심이었습니다. 제자 빌립의 눈에는 이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 다.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눈에는 이 작은 도시락이 보이긴 했지만,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두 제자 모두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볼 수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기적은 크고 위대한 재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흠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용하신 도구는 언제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엘리사의 기름 한 병, 과부의 동전 두 개, 그리고 이 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버려질 만한 것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언제나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재능도 변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 과거는 실패로 얼룩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나이 들어서 쓸모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버려질 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과거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부름

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이 세상의 시계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시간, 달란트, 작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졌을 때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영적 긴장감이 버려지지 않도록

둘째, 예수님은 배부름으로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버려두지 않도록 모으라는 것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예수님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배부름을 얻게 된 이들입니다. 예수님은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영적 위험, 그들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 것처럼, 예수님은 배부름 이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영적 위험을 경계하셨습니다(신 6:11~12).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배부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호 13:5-6).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됩니다.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배부름을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요 6:26).

배부름이 가져다주는 영적 위험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기를 원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배부름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조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배부름이 가져올 영적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만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셋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만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버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 것은 단순히 거기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받으신 이후 축사하셨습니다.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단어에서 기원한 단어가 성찬, ‘유카리스트(Eucharist)’입니다. 평범한 빵이 거룩한 양식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감사하는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사라지고 맙니다. 드려진 것은 아무리 작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드려진 시간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물질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버려질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결국 버려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버릴 것이 없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쓰이지 않아 녹슨 인생이 아니라, 많이 쓰임받아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입니다.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까? 드려져 쓰임받는 인생은 이 땅에서는 닳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버려지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버려질 만한 빵 한 조각도 잃어버리지 말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요 6:39). 같은 단어,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실 때 잃어버려지는 영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인생, 영원한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의 남은 조각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배고픔은 이겼지만, 배부름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난은 이겼지만 부요함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남은 조각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남은 조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가능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결코, 버려지지 않는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해가 될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해롭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뺨을 돌려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때로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는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복음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빼앗는다고 여긴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자기희생적이어야 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종교의 자유는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리로써 왕, 대통령, 지방 정부의 부당한 처벌이나 제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다. 물론 정부가 항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실패는 종교의 자유가 자비로운 통치자가 부여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권임을 더욱 분명히 보여 준

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의 일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렇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복음 전파의 일부다.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 진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복음을 방해하지 않는다.

둘째,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 가르침의 오래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종교의 자유는 초기 교회의 가르침에서도 나타난다. 3세기 교부인 터툴리안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종교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썼다. 4세기 초 기독교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정부가 더 이상 종교적 일치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해서 국가 차원 종교의 자유를 여는

게기가 되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선택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종교적 자유를 지켜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이해했고, 그 책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진다.

셋째,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식이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로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정하신 존엄성을 인정하는 가장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많은 연구는 건강하고 번영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2018년 ‘퓨 리서치 센터’는 종교의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함

께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나 중국처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다른 기본적 권리도 함께 제한한다. 종교의 자유는 더 큰 번영으로도 이어진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종교인과 종교 단체가 경제에 1조 2천억 달러 이상을 기여한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다. 매우 단순하게 말해서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기독교적 증언에 해롭다고 말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는 사회적 구성물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진리를 반영한다.”

“종교의 자유는 기독교 가르침의 오래되고 핵심적인 부분이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식이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성경적 재정관

영역주권과 일반은총으로 보는 돈의 의미



홍준표 성도
(온누리세계관학교,
서빙고공동체)

교회에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부담이 간다. 왜일까? 영성을 다루는 교회에서 물질의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아서라기보다, 오히려 돈이 우리 삶의 매우 깊은 부분, 어쩌면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을 넘어 우리의 시간과 수고가 응축된 결과다. 동시에 미래와 안정 그리고 욕망과 불안까지 담고 있다. 그렇기에 재정에 관한 이야기는 곧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적 재정관은 ‘헌금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추는 중요한 주제이다.

성경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라”(시 24:1)는 말씀처럼,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는 재정을 ‘소유’가 아니라 ‘관리’의 개념으로 전환시킨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물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받은 청지기이다.

영원성의 관점에서 볼 때, 청지기 개념은 단순한 관리의 차원을 넘어선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루는 재정 역시 일시적인 관리가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에 맡겨진 도구라 할 수 있다. 이 땅의 재물은 결국에는 사라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재정을 대하는 청지기적 삶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재정을 통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는 요청이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세상 소비를 넘어 영원한 열매로 이어진다. 반대로 재정을 자기만족과 축적에만 사용한다면, 결국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인생을 투자하는 헛수고가 된다. 청지기는 이 차이를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현재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보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일터, 경제 활동, 재정을 다루는 방식 역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창출하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기를 기대하신다. 이런 의미에

서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일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은 ‘영역주권’ 개념과 깊이 연결된다. 하나님은 교회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기업 등 삶의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다. 각 영역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질서와 역할이 존재한다. 경제 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며, 생산과 교환,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능을 감당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경제 활동을 통해 정당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을 성장시키며,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과정과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부합하는가?’라는 점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와 같은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요는 분명 중요한 지표이며, 이를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기준만으로 모든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실제로 우리 삶에는 가격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가치들(신뢰, 헌신, 정직, 배려 등)이 깊이 작용하고 있다. 이 가치들은 단순한 개인의 미덕을 넘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일반은총’의 흔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가 형성되고, 정직이 존중받으며 서로를 배려하는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온누리세계관학교’ 수업을 수강하셨다면 선한 가치들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적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반은총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가격을 넘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질서와 선함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에 따라 더 깊이 이해될 수 있다. 성경적 재정관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제공하는가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신다. 같은 재화와 서비스라 할지라도 탐욕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따라서 재정과 경제 활동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와 방향의 문제로 확장된다.

결국, 성경적 재정관은 세상의 기준을 부정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는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는 여전히 시장 안에서 일하고 경쟁하며 가치를 창출한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경제 활동은 단순한 생존이나 축적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재정을 통해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인천M센터 개원

이주민과 난민 사역의 ‘허브(Hub)’

인천은 선교 도시다.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이 시대에도 선교에 최적화된 도시다. 바로 그곳에 ‘인천M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M센터 담당 구자현 선교사에게 역할과 포부에 대해 들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9-10).

구자현 선교사는 이 말씀이 곧 인천M센터의 비전이자 역할 그리고 포부라고 밝혔다.

“인천M센터는 <요한복음> 10장 9-10절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인천에 와 있는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외국인 예배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리더십을 세우며, 이주민과 난민사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확장할 것입니다.”

기관과 교회, 성도들을 ‘연결’

인천은 최근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이주민과 난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선교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M센터가 이주민과 난민사역의 ‘허브(Hub)’ 역할을 해낼 거라 기대한다.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과 난민이 한국에 정



구자현 선교사가 이주민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교육, 행정 지원은 물론이고, 정서적 돌봄과 영적 회복까지 거의 모든 영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필요를 인천M센터 혼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역할이 필수입니다. 이주민과 난민들의 필요를 채워줄 각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훗날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전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섬길 것입니다.”

인천M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각 영역 전문가가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기관과 교회, 성도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인천M센터는 인천온누리교회와 인접해 있

습니다. 그 덕분에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성도님들과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큰 강점입니다. 인천M센터에서는 성도들이 이주민과 난민 섬김을 지속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구자현 선교사는 인천M센터의 사역은 특정한 이들만의 몫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성도님께서 인천M센터에 오셔서 함께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M센터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거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M센터 사역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이주민, 특히 난민 여성들을 위한 멘토링 연계와 아기 돌봄을 병행

한 기초 한국어 교육입니다. 둘째,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학습 지도와 스포츠 활동입니다. 셋째, 외국인 밀집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 양육 활동, 예배 모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그동안 여러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 오시던 일이지만, 앞으로는 센터를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량 봉사도 섬겨주시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천M센터의 가장 무겁고 중요한 기도제목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2003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는 김포M센터에서 섬겼습니다. 사역 범위가 확장되면서 신설되는 인천M센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당해 온 사역 경험들이 인천M센터라는 새로운 현장에서도 이어지고 확장되도록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인천M센터가 한마음으로 팀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 가운데 사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시고요. 또한 복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종족에게도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잘 섬기도록 인천M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의: 010-6869-4290(메시지)

장로칼럼



이승배 장로
(인천 모자이크예배
담당장로)

인천M센터 개원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첫째, 이주민 선교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전문 기관의 설립이다. 인천에서 외부로 나가는(Outbound) 방향으로 시작된 이주민 역사가 이제는 내부로 들어오는(Inbound) 방향으로 바뀌었다. 1902년 알렌 선교사와 인천 내리교회 존스 목사가 주선한 하와이 이민단 102명 중에서 86명이 인천 출신이었다. 이들은 하와이 이민 당시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일하면서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 외로움 등을 극복하며 교회를 세우고, 한글 교육과 민족교육, 독립 자금 모금 활동까지 확장해 나갔다. 그들은 고국에서 출발하면서 대한제국 궁내부 산하 수민원(緩民院)에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침략으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되면서 난민 신분으로 전락하게 됐다.

124년이 지난 지금, 인천 땅에는 이주민과 난민 23만 명이 들어와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3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강제 이주를 겪고 있고, 그중에서 약 4,270만 명이 난민이라고 한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난민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에는 약 1만 5천 명이 난민 지위를 신청한 바 있다. 유럽과 북미의 난민 정책이 인도주의적 포용에서 안보 및 국경 통제 강화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아시아에서 드물게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는 한국이 난민들에게 대안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M센터가 개원하는 인천 연수 지역에는 중앙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국가 출신 난민 신청자들이 전국 최고 밀집도로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인천이 다시 한번 ‘보내던 땅’에서 ‘품는 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

둘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이다. 이주 배경 자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국내 출생은 2.4배, 중도 입국은 2.3배, 이주민 학생 수는 11.2배 늘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들이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면 사회·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26년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인천온누리교회는 개척 당시부터 국제예배와 함께 다문화 공동체의 비전을 품었고, 송도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시작한 모자이크 공동체를 확대하게 되었다. 그 열매로 2000선교와 M센터 사역과 더불어 교회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연수역 앞에 인천M센터를 개원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과 난민 자녀들이 교육 소외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고, 복음에 직접 노출되도록 차세대 학부모를 중심으로 많은 성도가 물질과 기도로 동참했다. 이는 인천온누리교회라는 모달리티와 M센터라는 소달리티의 단순

한 물리적 협력이 아니다. 화학적 결합이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한다.

셋째, 국내 우수 인재 유치정책(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인재)과 맞물려 장기 체류 이주민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한 복음 전도 및 체계적인 제자 훈련, 그리고 본국을 변화시킬 선교 인력의 산실이 되는 것이 인천M센터의 역할이다.

인천온누리교회에서 1.5km 내에 연세대, 인하대, 인천대 등 9개의 대학이 있어서 인천 송도 지역은 외국인 유학생의 집적도가 매우 높다. 유학생 전도를 위해서 인천온누리교회 모자이크예배에서 ‘ALLGEN’이라는 이름으로 영어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인천M센터의 개원과 함께 큰 영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인천M센터 개원은 단순한 시설의 확장이 아니다. 열방을 품고 섬기라는 시대적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인천M센터를 통해서 인천이 다시 한번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힘 있게 흘러가기를 소망한다.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정신의학, 심리학, 신학, 영성이 어우러진 ‘통합적 치유’



이기원 목사
(회복사역본부장)

주일 아침, 예배당 성가대석에 앉아 있던 한 집사는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심장이 터질 듯한 공황을 경험했다. 10년 넘게 교회를 섬겨온 신실한 성도였음에도 그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걸까’라며 자책했다. 직장 업무와 자녀 교육, 건강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지는 고통 속에서 그는 새벽기도에 더욱 매달렸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병원을 찾아 범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주위의 시선이 싸늘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중독된다”,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약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에 그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심리상담을 통해 생각의 패턴을 교정해도 신앙과 연결되지 않는 공허함이 뒤따랐다. 그는 교회와 병원, 상담실이라는 세 가지 세계를 표류하며 불편화된 도움을 받는 한계에 부딪혔다.

벼랑 끝에 선 성도들, 이제는 교회가 답할 때

이 같은 불안의 고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2024년 국립정신건강센터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한 해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으며, 우울증 환자는 11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 따르면, 교회 출석 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우울이나 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내에는 ‘믿음이 강하면 불안하지 않다’라는 단편적인 오해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수많은 성도가 자신의 불안을 영적 실패나 죄로 여기게 만들고, 결국 고통을 나누지 못한 채 어둠 속에 홀로 숨게 했다. 이제 교회는 성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신앙 부족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가 기획한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가 바로 이 ‘통합적 치유’를 모색하는 자리다.

불안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 시스템이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느끼는 적당한 긴장감은 우리를 더욱 집중하게 하고, 준비하게 한다. 그러나 다음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신호다. 첫째, 상황에 비해 반응이 지나치게 강하



사진은 2025년 회복축제 ‘온전함’.

고, 둘째, 위협이 사라진 뒤에도 불안이 지속되며, 셋째, 스스로 멈추려 해도 통제가 되지 않고, 넷째, 수면, 집중, 관계, 신앙생활 등 일상 전반이 방해받을 때다. 이러한 병리적 불안은 의지의 부족이나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다. 불안을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불안을 재정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만드셨다. 성도들이 불안과 우울을 겪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불안과 같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을 해결할 때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의학적 관점에서 불안을 재정의해야 한다. 과도한 불안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물학적 반응이다. 우리 뇌에는 공포를 감지하는 화재경보기와 이를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 불안장애는 이 장치들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 마음의 안정을 돕는 다양한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무너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몸은 만성적인 긴장 상태에 놓인다. 따라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학적 지혜를 사용해서 성령의 전(殿)인 우리 몸을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많은 성도가 심장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만성 두통, 목과 어깨 통증, 수면 장애 등 신체 증상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뒤늦게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곤 한다. 불안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 몸의 ‘투쟁-도피 반응’ 때문이다. 뇌가 위협을 감지하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소화 기능이 억제된다. 이 비상 모드가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되면 몸 전체가 소진된다.

2019년 미국심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범 불안장애 환자의 95%가 최소 한 가지 이상

의 신체 증상을 경험하며, 60%는 처음에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신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수치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면의 정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각의 습관 교정

둘째,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각의 습관을 교정해야 한다. 불안한 이들은 사소한 문제를 최악의 재앙으로 단정 짓는 ‘인지 왜곡’을 겪기 쉽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포착해서 성경적 진리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불안을 없애려 싸우기보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작은 실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경계는 안정을 취하게 되고, 뇌의 불안 신호를 알리는 편도체를 잠재울 수 있다.

범불안장애를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인지 왜곡은 다섯 가지다. 작은 문제를 최악의 재앙으로 확대하는 ‘과각화(Catastrophizing)’다. 한두 번의 실패를 ‘나는 항상 실패한다’로 일반화하는 과잉일반화, 모 아니면 도로 판단하는 흑백논리, 근거 없이 타인이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고 단정하는 독심술, 그리고 ‘잘해야만 한다’라는 경직적 당위적 사고다. 이 왜곡된 렌즈를 벗어내는 방법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생각의 틀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롬 12:2)는 말씀은 현대 인지심리학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맞닿는다. 왜곡된 생각을 알아차리고, 성경적 진리로 도전하며, 변화된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치유의 실제적인 길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실제적인 영성 훈련

셋째, 성경적 관점에서 실제적인 영성 훈련을 해야 한다. 엘리야, 다윗, 심지어 겐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조차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으셨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되새기는 기도에서 벗어나 걱정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누는 ‘임마누엘 기도’를, 그리고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나누며 정서적 용량을 키우는 방법들을 배워야 한다. 트라우마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를 충분히 여기는 존재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최근 기독교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우리의 뇌가 안전한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조절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 준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창 2:18)는 말씀은 단순한 사회적 권고가 아니라 우리 뇌의 창조 원리를 담고 있다. 불안은 혼자 다룰 수 없다. 치유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시작된다. 이번 세미나가 강조하는 ‘공동체적 돌봄’은 이런 이유에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치유 방식이다.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한 환자의 개선율이 단독 치료보다 현저히 높다는 임상 연구들이 있다. 여기에 안전한 공동체와 영적 돌봄까지 더해지면, 증상의 개선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의 회복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걷는 회복의 길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야만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회복이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불안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성을 통해 평생에 걸쳐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크리스천도 때로는 깊은 불안과 우울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이기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의학적 지혜와 심리학적 조언, 영적 훈련이라는 다양한 치유의 손길을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을 책망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상처를 나눌 안전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정신건강 세미나 ‘크리스천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가 불안 속에 웅크린 성도들과 그 가족을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기를 소망한다.

선교사가 알려주는 성경 인물 -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부탁한 기도제목

‘모본’(母本)이라 불리는 삶과 사역, 신학적 깊이



최종상 선교사
(신학박사, 다큐 〈바울로부터〉스크립트
원작, 출연)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것은 초대 교회의 삶과 사역, 선교와 신학의 발전, 복음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조차 이방 선교를 생각지도 못

할 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간 최초의 선교사요, 개척자였다. 이뿐만 아니라 27권의 신약성경 중에서 13권의 저자이기도 하다. 바울의 서신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경전이며, 더 나아가 최초의 기독교 문서로서 그를 반대한 자들조차 인정할 만큼 무겁고 힘이 있다. 이처럼 바울의 삶과 사역, 신학적 깊이는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 신학자와 성도에게 모본(母本)이라 불린다.

놀랍게도 이 위대한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했다”고 말한다. 그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을까? 이 질문을 두고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먼저 발견하는 사실이 있다. ‘그가 자신을 위한 기도제목을 많이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동시에 알게 되는 또 하나는 그 기도제목에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골 4:3-4).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9).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살후 3:1-2).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도제목의 공통적 핵심은 ‘복음 전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나 출옥,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 대신 어느 교회에나 동일한 기도제목을 부탁했다.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그 문이 열렸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고 분명하게 전하기를, 나아가 복음이 널리 퍼지고 받아들여지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이는 그가 전도를 얼마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는지,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는 고

백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확신을 드러낸다.

선교사와 전도자들에게 주는 교훈

이는 오늘날 선교사와 전도자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먼저 어떤 기도제목을 부탁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 자녀, 안전, 건강, 언어 공부, 재정, 현지 동역자 선정 등 다양한 필요를 위해 기도제목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보다 자신의 전도사역을 위한 기도를 먼저 부탁해야 한다.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했다면 오늘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선교사와 전도자들이 가장 주력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도전을 준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선교사와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세계 곳곳의 선교지로 나아가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가 정체를 넘어 감소 흐름에 들어서고 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전파할 때 아닐까?

작은 영역에서부터 변화의 걸음 내딛기를 원한다.

지금은 작은 바울이 많이 필요한 시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전 1:27, 9:16, 행 20:24).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다. 바울은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할 말”이라고 표현한다. 복음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비밀스럽게 오랫동안 간직되어 온 세상의 가장 귀한 보화이자, 온 인류에게 전해져야 할 가장 위대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복음을 가능한 한 널리, 그리고 신속하게 전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복음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그는 성도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선교사들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역시 선교사와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들이 그 문을 찾으려고 애쓰도록, 그 문이 열렸을 때 분명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설명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바울의 이 핵심적인 기도제목은 그의 선교 보고와도 궤적을 같이 한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따르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를 한다. 선교 보고의 핵심은 하나님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행하신 역사를 나누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들의 마음을 여셨고, 자신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고하는 데 있다. 오늘날의 선교 보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을 나누되, 그 핵심 내용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보고여야 할 것이다.

바울의 기도제목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도제목과 함께 생각하게 된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체적인 기도제목 역시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기도하라 하시니라”(마 9:37-38).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제목도 전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와 교회는

는 신학자였고, 가슴이 뜨거운 신학자였으며, 교회의 삶과 복음 확장에 실제로 기여하는 신학자였다. 신학과 실천, 영성을 조화롭게 살아낸 일꾼이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은 흔적을 온몸에 훈장처럼 가득 지닌 채 목숨까지 드린 순교자였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였을 뿐만 아니라 늘 동역자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며 사역했다.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따뜻한 친구로서 섬기고 격려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그렇게 그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다.

바울이 오늘날 예루살렘과 튀르키예, 그리스와 로마를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는 우리의 복음 전파를 위한 노력을 기뻐할까? 아니면 아쉬워할까?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건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전 15:58).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빌 3:16).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대답은 아닐까?

바울이 수행했던 모든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선교였다. 성령님이 문을 여시고 때로는 막으시며, 환상으로 인도하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 그는 단지 도구였지만 깨끗하고 충성된 도구였다.

오늘날 유럽 교회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역시 정체를 넘어 감소의 흐름에 들어서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시 전파해야 할 때 아닐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라고 고백하던 바울을 본받기를 소망한다. 지난 2천 년 동안 바울과 같은 인물이 거의 없었기에 그를 온전히 본받은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영역에서부터 조금씩 변화의 걸음 내딛기를 원한다. 지금은 작은 바울이 많이 필요한 시대다.

이 기도제목을 붙들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전도자가 일어나 복음의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추수 밭으로 나아간 전도자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 전도사역을 다시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선교 보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와 그들을 보낸 교회는 선교사역의 핵심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전도의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금은 ‘작은 바울’이 필요한 시대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자 열정적으로 애쓰던 목회자였다. 그는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안정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수했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신학자였다. 그러나 이론에만 머무는 상아탑(象牙塔)의 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발로 뛰

영종온누리교회 '나침반Q'
일정: 5월 10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영종온누리교회 3층 백향목홀
문의: 010-9699-5085, 당일 현장접수 가능
회비: 2만 원.

대전온누리교회 '나침반Q'
일정: 5월 16일(토) 오후 2시
장소: 대전온누리교회 6층 본당
문의: 042-825-3642(5층 목회지원실)
회비: 2만 원.

“이주민 맞이하고 세우는 역할”

인천M센터 개원 감사예배



인천M센터 개원 기념 리본 커팅식.

인천M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69-4번지 2층)가 개원했다. 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개원예배를 지난 4월 26일(일) 오후 2시 30분 인천M센터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영환 장로(온누리M미션 담당) 대표기도, 모자이크팀 특송,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송동섭 장로(인천온

누리교회) 경과보고, 구자현 선교사(인천M센터 담당) 비전 발표,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 담당) 축사, 리본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Kingdom Pioneer’ (행 11:19-26)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이주민을 맞이할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인천M센터가 이주민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완 목사는 “많은 이주민이 인천M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인천M센터는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위한 예배, 양육, 공동체 모임을 하고, 이주민 차세대와 청년들을 교회 리더십으로 성장시키며, 이주민 사역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비전을 품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창립했다.

/ 남현영 기자 hyun0@onnuri.org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

5월 18~24일 Acts29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가 5월 18일(월)부터 24일(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에서 열린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대만,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비서구권 7개국 교회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한다.

2026 온누리 IN2 콘퍼런스는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목회자와 선교사역자 20여 명이 강사로 나선다.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 사역 구조, 각 사역의 실제 운영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참가 국가와의 선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온누리교회 예배 탐방도 한다.

온누리 IN2 콘퍼런스 봉사자를 모집한다. 안내, 통역, 음향, 정보기도, 식사 지원, 문화탐방 동행 등을 도와 줄 손길이 필요하다. 하단 QR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 IN2 콘퍼런스는 비서구권 교회 지도자들에게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2년 ‘비타민C’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5년 ‘온누리 IN2 콘퍼런스’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까지 비서구권 14개 국가에서 교회지도자 2천 명이 참석했다.

문의: 010-3786-6298



/ 홍하영 기자

온누리울타리,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무브온페어’ 참석

온누리울타리가 지난 4월 25일(토) 2026 자립준비청년 박람회 ‘무브온페어(Move On Fair)’에 참석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 42개 기관이 참여했다. 자립준비청년 350여 명이 방문했다.

온누리울타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정글 vs 가이드’를 콘셉트로 부스를 꾸미고,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멘토링 정보를 제공했다. 아동복지

시설 퇴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선 청년들의 현실을 ‘정글’에 빗대고, 이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울타리(보호), 성경 말씀(방향), 멘토(안내)’를 ‘정글 가이드’에 비유해서 온누리울타리의 역할을 소개했다.

무브온페어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했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과 예비 대상자인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 박람회다.

제이홈 ‘가정위탁세미나’ 개최

5월 17일 오후 5시 서빙고 꿈아이홀

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정 모임 제이홈이 ‘가정위탁세미나’를 개최한다. 5월 17일(일) 오후 5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2층 꿈아이홀에서 열린다.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승섭 대리가 위탁 실무 전반을 안내하고, 송주영 권사가 위탁 부모로서

의 은혜와 고백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010-5323-8947(이단영 총무), 010-3244-5596(유보연 총무))로 신청하면 된다. 가정위탁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5월 16일~6월 27일 양재 두란노홀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 양재 토요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와이무슬림(이슬람선교학교)은 이슬람을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다. 4주 차에는 이슬람권의 예배 참관, 이슬람 사원 견학, 현지 문화 체험 등을 한다. 참가신청은 5월 23일(토)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6302-3482

열방바자회 물품 기증 및 후원

안산M센터가 5월 10일 개최하는 ‘열방바자회’ 물품 기증 및 후원을 받고있다. 이번 바자회는 이주민 공동체 여름 선교 활동 비용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열방바자회에 물품

기증 및 후원을 할 성도들은 5월 5일(화)까지 판매가 가능한 새 제품이나 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물건을 보내면 된다. 주소는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문의: 031-491-9650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

5월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K-CCM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힐링보이스’ 참가자 모집을 5월 10일(일)까지 한다. CCM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은 지원서와 무반주 가창 영상, 사진과 일을 이메일(cgnhealingvoice@d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가창 영상은 자유곡 1곡과 지정곡 1곡을 선정해서 부르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촬영해서 제출하면 된다. ‘힐링보이스’ 공식 홈페이지(healingvoice.cgnkorea.net)에서 지원서 양식과 지정곡 리스트 등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K-CCM 글로벌 오디션 ‘힐링보이스’는 참가자 모집 종료 이후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8월부터 본선과 결선을 거쳐 최종 우승자 1인을 선정한다. 방송은 9월부터 시작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3천만 원을 수여한다. 결선에 진출하는 TOP 7인에게는 CCM 음원 발매, CGN 국내외 투어 콘서트, CGN 후속 프로그램 출연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문의: 02-3275-9333

/ 남현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2025년 재정 및 사업 성과 공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해 연간 재정 및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NGO 더멋진세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3개국에서 약 117억 원 규모의 사업을 했다. 취약계층 지원, 교육, 보건, 농업,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했다.

핵심 사업인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단위의 통합 개발 방식

으로 운영했다. 취약계층 지원 6개국, 교육 7개국, 농업 및 소득 증대 5개국, 주거환경 개선 6개국에서 각각 시행했다.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스리랑카 수해 피해 지역 4,600여 명,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 2,400여 명, 우간다 난민 정착촌 6만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및 회복 지원을 했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서빙교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인시 이촌로 347-11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신교센터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대전 유현목 목사 (042) 825-3642-4 3529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2-6층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제주 김태용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서산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안길로 213 4층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봉화온누리 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민리산길 613 진해팔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팔길 166 ■AMA 형제교회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사로 2000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샌디에이고 박재영 목사 1-619-847-4147 86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4 Federal St, Billerica, MA 01821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시드니 전한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nsaihashi Chuuku Osakasi Japan 우에다 히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 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 7-64 JAPAN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 4F 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 61 EHWADAIAIMOND 2F 교토 경원하 목사 81-75-748-9303 (615-0854) 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 ukyo-ku, Kyoto-si ■중동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 nam
--	--	---	---	--

[illegible]

소천 4/27(월) 관악급전 박경희 권사 모친상 고 조석란 4/29(수) 서초B 권순철 집사 부친상, 전미연 성도 시부상 고 권혁열 4/30(목) 브릿지33+ 안상구 성도 모친상 고 최기자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이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재정 온누리교회협의 현금 매뉴에서 모바일현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현금온라인 안내 신입회원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광고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초·중등)모집 대상: 초1~중1(타 캠퍼스, 타 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신영화(010-5091-1862)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남현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5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보드미 봉사자 모집 자격: 용산구민 누구나 내용: 용산구 내 고령, 은둔 어르신 발굴, 어르신 대상 정서 및 돌봄 지원, 문화활동 동행 등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김유진 팀장(070-4340-250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 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강재준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아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온누리선교재단 인사·노무 전문가 정규직원 채용 업무: 인사기획, 노무관리 등 자격: 대졸 이상, 관련 직무 경력자 등 우대: 노무법인 등 실무자 적극 우대 형태: 정규직 지열: 입사지원서(자우서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nicholas@onnuri.org) 또는 Fax 접수(02-749-0206) 문의: 온누리선교재단 총무팀(02-3215-3102) *사제한 사항은 JOB KOREA 게시 채용공고를 확인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m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